

2016.06.10.

충남 저출산 · 고령화의 충격

목 차

I . 현재와 미래모습

II . 미래위험과 불안들

III . 문제에 대한 해법 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li.re.kr

I . 현재와 미래모습

- 01. 저출산 경향의 지속
- 02. 초고령 사회로 진입
- 03. 초고령 노인의 증가
- 04. 인구이동의 선택성
- 05.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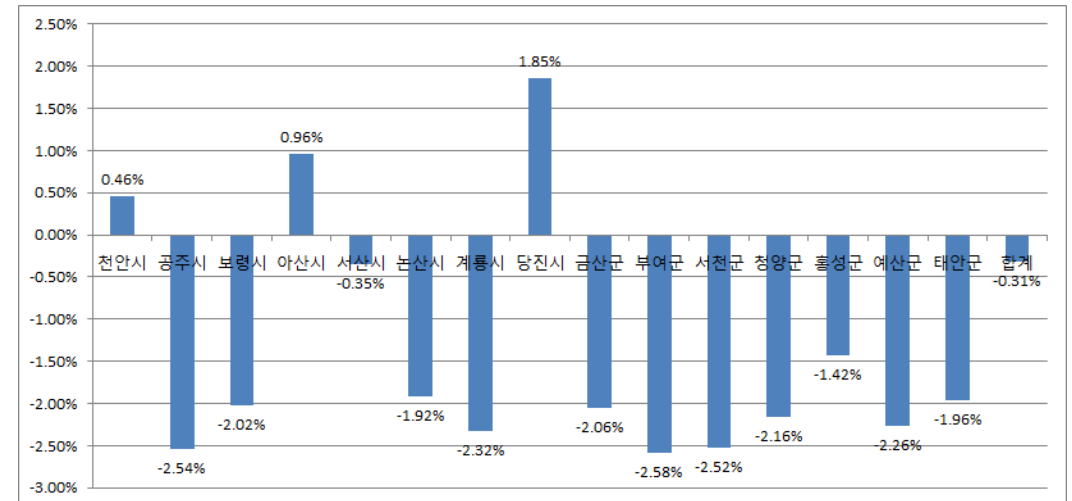
01 | 현재와 미래모습 저출산 경향의 지속

-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출생아수 절대 감소**
 - 출산율 1.42명(전국4위, OECD 1.74명)
 - 가임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 등 절대 감소

■ 2040년까지 출생아수 지속 감소 예상

- 2015년 92,867명 → 2040년에 85,590명 감소
- 충남 전체의 연평균 출생아수 증감율은 -0.31%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수 감소(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가임여성 수 (15~49세)	472,610명	470,034명	△2,576
혼인건수	12,482건	12,040건	△442
출생아수	18,628명 (1.44명)	18,200명 (1.42명)	△428
평균 출산연령	32.06세	32.17세	0.11
초혼연령	28.84세	28.95세	0.11



(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제225호)

저출산의 지속 및 초저출산 현상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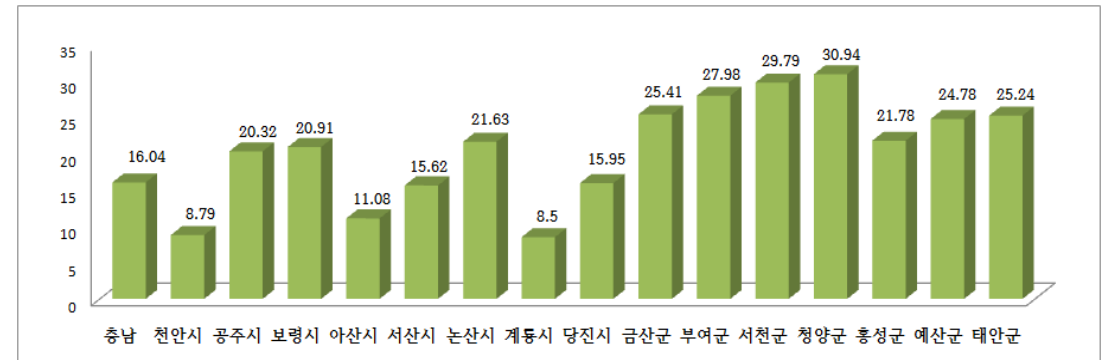
02 | 현재와 미래모습 초고령 사회로 진입

■ 2014년 기준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인구대비 노인인구 20%)

■ 2040 충남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의 고령화

● 초고령 사회인 10개 시·군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지속가능성, 고령사회인 2개 시·군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 고령화 사회인 3개 시·군의 고령화 사회 유지 혹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가능성

● 향후 2040년까지 25년간 노인인구 증가율은 **7.49%**로 전망



시·군별 총인구대비 노인 인구 현황 (송미영 · 김희경, 2015)

2020년	2030년	2040년	연평균증가율
388,719명	543,795명	708,065명	7.49%

충남의 노인인구 전망(충남연구원, 2016)

인구의 초고령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03 | 현재와 미래모습 초고령 노인의 증가

■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 급속 증가(고령노인이 2005년 16.2% --> 2015년 24.9%)

구 분	전체	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2005년	1,962,646	261,800	94,764 (36.2)	78,332 (29.9)	46,494 (17.8)	26,601 (10.2)	11,089 (4.2)	3,608 (1.4)	763 (0.3)	149 (0.1)
2015년	2,077,649	341,214 (100.0)	95,903 (28.1)	84,428 (24.7)	76,011 (22.3)	52,160 (15.3)	22,599 (6.6)	7,721 (2.3)	1,712 (0.5)	68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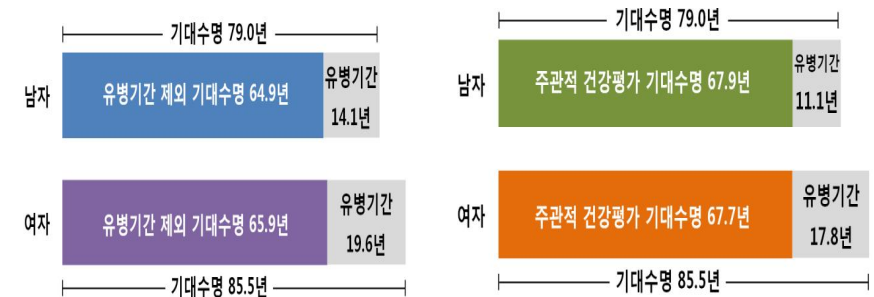
충남의 노인 연령별 비율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 2016)

■ 높은 독거노인 비율

- ◎ 2015년 12월말, 93,532명(27.4%) : 남성(28%) vs 여성(72%)
- ◎ 독거노인 중 빈곤독거노인 17.2% : 남성 26% vs 여성 74%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성별 차이

- ◎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낮을 것으로 예측



2014년 건강수준별 기대수명(통계청, 2015)

초고령노인의 증가와 삶의 질 저하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04 | 현재와 미래모습 인구이동의 선택성

■ 인구 이동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전광희, 2016)

■ 충남은 10-19세 인구가 순유출, 기타 연령대는 순유입(2015)

◎ 이러한 연령대별 이동의 선택성은 충남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 20세 미만의 인구이동은 두 가지 이유.

① 피부양자로서 부모를 따라가는 가족이동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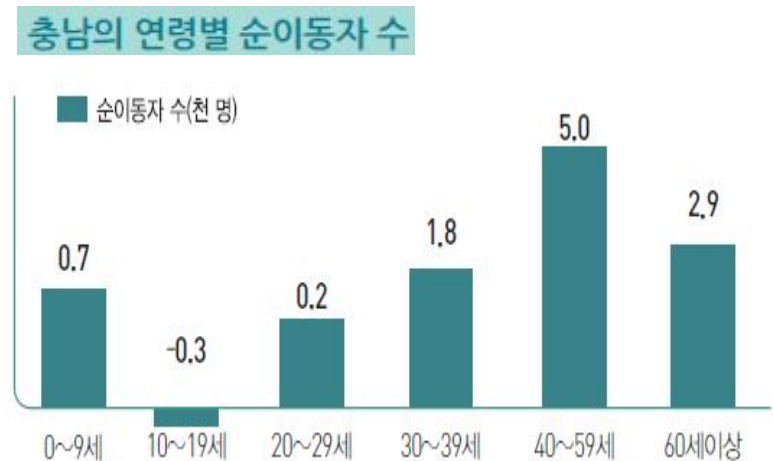
②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다른 지역의 학교로 보내는 경우

■ 여자 이동인구의 연령분포는 남자와 다름

◎ 20-24세 연령대는 작은도시에서 큰도시로의 이동경향이 강함

◎ 충남 순유입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여자는 25-34세, 남자는 35-44세

◎ 여성 고령층(65세 이상)은 충남으로의 전입보다 전출이 큼, 남자는 반대 흐름



출처: 충남인포그래픽제15호 재구성
(2015년도 데이터)

인구이동은 지역의 사회적 · 물질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인

05 | 현재와 미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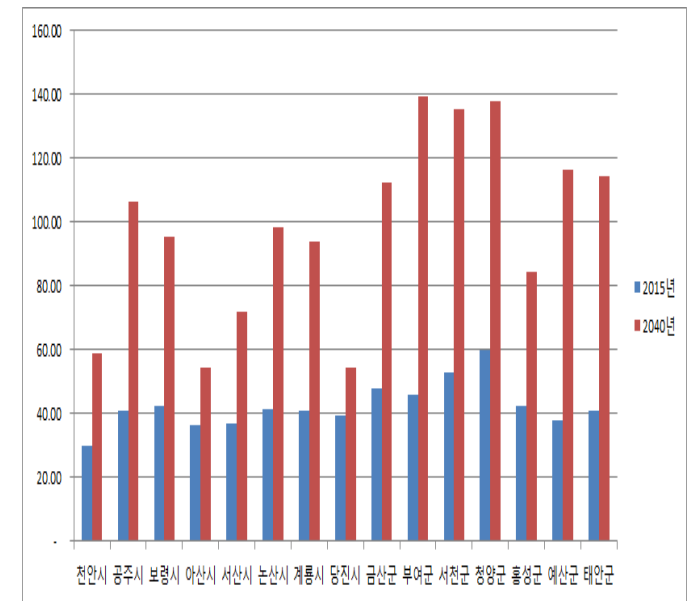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연관성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성이 있는 인구학적 사회문제

- 노령화 지수 :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사회의 부양부담을 측정
- 유년 부양비(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15세 미만 유소년층 비율)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

■ 노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비 증가 (젊은층 부담 ↑)

- ◎ 2015년에 생산가능 인구 1인당 37.23명을 부양
- ◎ 2040년경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67.45명을 부양



(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사회적인 부양부담이 커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Ⅱ. 미래위험과 불안들

- 01. 벼랑 끝 젊은 층
- 02. 인구절벽으로 불안한 충남의 노후
- 03. 지역 간 불균형

01 | 미래위험과 불안들

벼랑끝 젊은층

■ 삼포세대에서 N포세대로

- 출산의 장애요인 중 취업불안(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직장 고용불안, 양육비용 걱정 등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큼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부족, 양성평등가치, 세대통합가치 등 사회문화 미성숙 등이 저출산 경향 부채질
- 여성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으나 일·가정 양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산 회피가 예상되는 조사결과
 - 현재 미취업자 중 전에 직장에 다닌 적인 있는 경력 단절자는 48.1%, 여성은 51.9% vs 남성(39.6%)
 -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 원인은 결혼과(26.1%), 임신·출산(20.4%), 이 중 약 42.9%는 3년 이후 재취업 기대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1순위 정책은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32.1%),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 (20.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13.8%) (충청남도, 2014)

●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가족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족분야의 성평등 세부지표 비교 (2014년)
-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 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22.9	100.0	91.4	52.3	66.6
분야 1위 지역	30.0	100.0	99.5	64.1	73.4
전국평균	25.8	95.0	93.8	46.6	65.3

* 자료: 여성가족부(2015b: 135). 자료원(*: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청년기의 출산육아정책을 고용과 연계해서 설계하는것이 핵심(NEAR 재단, 2011)

02 | 미래위험과 불안들

인구절벽으로 불안한 충남의 노후

■ 고령화 사회의 불안들

- ◎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 변화가 뚜렷
 - 충남 사회조사(2015)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정부/사회’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31.5%), ‘스스로 해결’ (25.8%) 등의 순
- ◎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오히려 부담 혹은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소득에 대한 불안(노후파산),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불안 등
- ◎ 노인학대 (자기방임, 자살)
- ◎ 일본, 독일 등 초고령 국가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과 관련된 건강보험정책,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대 간 격차 및 갈등 심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용구조 변화, 신노년 문화의 등장, 주거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노인중심으로 변화
- ◎ 주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슈는 노인빈곤, 고독사, 치매노인, 자살, 돌봄 인력 부족 및 돌봄비용 부담 증가, 이주배경을 가진 노인문제, 노인범죄 증가, 지역인구 불균형 등(강은나 외, 2014).

당면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

03 | 미래위험과 불안들

지역간 불균형



■ 학교의 양극화 심화

- ◎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도서지역 학교들이며, 도심지역은 학교확대 이전 및 신설이 잇달아 양극화 양상
 -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 및 이농현상, 폐교로 인해 지역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등 저출산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생수급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 인구이동의 결과, 지역간 경제 불균형

- ◎ 충남 지역경제의 발전은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도내 다른 시군 지역들과의 경제 불균형은 심화되어 충청남도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전광희, 2016)

Ⅲ. 문제에 대한 해법 찾아보기

- 01. 기회의 충남
- 02.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01 | 문제에 대한 해법

기회의 충남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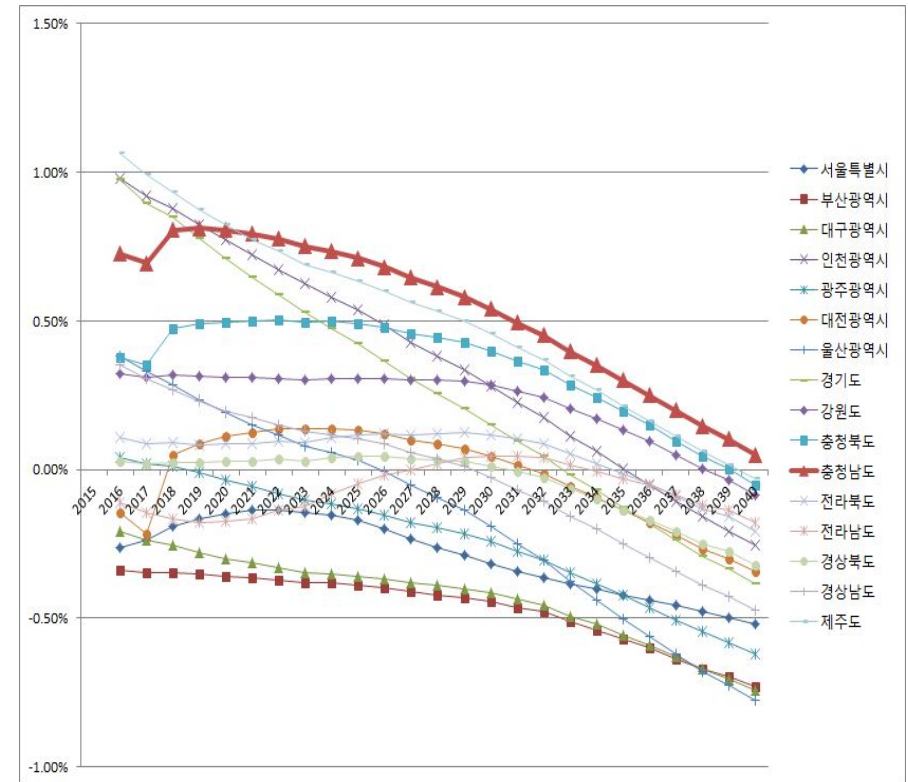
■ 인구감소보다 인구 증가

◎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2040년까지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임(통계청, 2014; 심재현, 2016)

◎ 2040년 경 충남 · 대전 · 세종의 전체 인구는 약 438만 명
→ 전국 인구의 8.6%(심재현, 2016)

■ 25세 이후 여성인구가 충남으로 순유입

◎ 25-59세 연령대는 순유입 경향을 보이고 있음(전광희, 2016)



2040 시도 인구증감율(심재현, 2016))

인구예측(인구증가 0% 이상) & 인구이동(25세 여성의 인구 유입)

02 |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 저출산 대응전략

◉ 젊은 층이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이 충남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등)

◉ 성 평등한 사회 참여와 성평등 의식 · 문화

(출산장애요인 지원: 아픈 아이 돌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돌봄 휴가제도’ (스웨덴, 덴마크)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조성(탄력근무, 노동시간, 임금격차 해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인권보장 (가족정책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

- 출생아수의 증가도 중요하겠으나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 인권지향적인 충남 지향
- 이주아동의 유형을 고려하여 취약한 사회권의 보장, 지역주민의 이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등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전략

02 |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 초고령화 대응 전략

◉ 마을중심의 공동체

- 면 단위 또는 읍 단위 중심으로 인구를 모아서 마을중심 공동체 운영' 을 모색
- 마을 공동체(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확대 (사회적, 정서적 지지)

◉ 근거리 케어,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 지자체에서 적절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 (돌봄인력 처우개선)
- 지역사회의 노인이 자살, 범죄, 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구축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전략



감사합니다